

## 일본 신화: 야마사치비코와 우미사치히코

고노하나사쿠야와 니니기의 세 아들 중에는 사냥의 달인으로 성장하는 야마사치비코와 숙련된 어부로 성장하는 우미사치히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마사치비코는 서로가 하는 일에 대해 알아보자며 두 사람의 도구를 교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마사치비코는 형의 낚싯바늘을 가지고 낚시에 나섰고, 우미사치히코는 사냥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야마사치비코는 빌린 낚싯바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야마사치비코는 검을 부러뜨려 새 낚싯바늘을 몇 개나 만들어 주었지만, 우미사치히코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던 야마사치비코의 곁에 시오쓰치라는 이름의 노인이 찾아와, 배를 타고 바다의 신인 와타쓰미의 궁전으로 가서 낚싯바늘을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야마사치비코는 조언대로 궁전에 도착하자 와타쓰미의 딸인 도요타마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둘은 사랑에 빠졌고, 와타쓰미는 야마사치비코가 신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이유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대연회에 초청받은 야마사치비코는 결국 도요타마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3년 동안 와타쓰미의 궁전에서 행복하게 생활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야마사치비코는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로 나온 이유가 잃어버린 형의 낚싯바늘을 찾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요타마는 아버지인 와타쓰미에게 낚싯바늘을 찾아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와타쓰미는 야마사치비코의 낚싯바늘을 찾기 위해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에게 궁전으로 모이도록 명했습니다. 입을 다쳤다는 도미를 제외하고 모든 물고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와타쓰미가 도미를 가까이 불러들여 살펴보자 입이 아팠던 이유는 낚싯바늘 때문이었고, 야마사치비코는 바로 형의 낚싯바늘이라고 알아보았습니다.

형의 낚싯바늘을 찾은 야마사치비코는 육지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와타쓰미는 이별의 선물로 야마사치비코에게 해수를 조종할 수 있는 한 쌍의 보주를 건넸습니다. 육지로 돌아간 야마사치비코는 우미사치히코에게 낚싯바늘을 돌려주려고 하지만, 우미사치히코는 이를 거절하고 동생을 위협했습니다. 야마사치비코는 바다의 신에게서 받은 보주를 사용하여 해수를 불러들여 우미사치히코를 물에 빠지게 하자, 우미사치히코는 결국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미야자키현 연안부에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신격화하여 모시고 있는 여러 신사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아오시마 신사에서 매년 개최되는 겨울 축제에서는 야마사치비코가 와타쓰미의 궁전에서 돌아왔을 때 환희에 찬 사람들이 바닷가로

맞이하러 들어가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살바와 비슷한 혼도시 차림의 참가자들이 차가운 파도 속으로 뛰어들어 야마사치비코를 맞이하는 정화 의식을 거행합니다.